

4차 산업기술로 우주의 시공간 거닐다

‘2019 상반기 ACT쇼케이스’
문화전당 오늘부터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별의 역사와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 별들의 탄생과 생명의 별, 지구의 비밀을 파헤치며 드넓은 우주를 넘나들며 탐험하는 시간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4차 산업기술과 콘텐츠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움직이는 시공간 체험 플랫폼은 영화 속을 걷는 것처럼 대형 스크린 속을 관람객이 걸으며 우주의 시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6일부터 ‘2019 상반기 ACT쇼케이스’를 선보인다. 문화장조원 복합1관, 복합2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ACT쇼케이스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색다른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다.

각각의 주제는 ‘코스모스, 우주의 시공간을 거닐다’, ‘미니어처 AR 팰리(마블러스 아시아)’, ‘ACC 디지털헤리티지 쇼케이스 ‘아시아의 건축: 통코난’.

먼저 문화장조원 복합1관에서 4월 28일까지 열리는 ‘코스모스 우주(WTC 프로젝트)’전은 내셔널지오그래픽사의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COSMOS)를 통해 경이로운 우주에 대한 탐구와 생명 진화의 비밀을 소개한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생명체가 사는 곳이 지구 하나라면 우주는 너무 아깝다’는 칼세이건의 말이 오버랩된다.

관람객은 움직이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별도의 장치 없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다. 설치된 플랫폼은 일반적인 VR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WTC’ (Walk Through Cinema)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관람객은 별도의 장치 없이 걸어 들어감으로써 가상현실과 맞닿아 있다. 기구를 착용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관람객이 직접 플랫폼으로 걸어 들어가 시공간을 느낄 수 있다.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9 상반기 ACT 쇼케이스’ 개막을 하루 앞두고 프레스 투어가 열렸다. 관계자들이 어린이문화관에 설치된 ‘마블러스 아시아’를 시연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미니어처 AR 팰리·애플 전통 통코난 등 3개 테마

VR·AR 결합한 색다른 문화콘텐츠 한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드넓은 코스모스 속 생명이 있는 행성은 지구만이 유일할까?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스펙터클하게 보여준다. 다양한 물고기와 꽃들이 등장하고, 현란한 우주의 생명체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면서 우주의 신비를 일깨운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을 따라 걸려있는 다양한 지구의 생명체와 입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다.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5월 26일까지 펼쳐지는 ‘마블러스 아시아’전은 AR, 무선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해 아시아 문화정보를 만날 수 있는 어린이 콘텐츠

이다. 마치 실제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운전하듯이 RC카를 조종하며 운전 도중 다양한 아시아의 랜드마크를 만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아시아문화의 정수를 할 수 있는 각국의 대표 문화재가 접목된 체험장이다. RC카 팰리를 따라 가다보면 숭례문(한국), 오사카성(일본), 자금성(중국), 타지마할(인도), 앙코르와트(캄보디아), 티엔무사원(베트남)을 만날 수 있다.

‘아시아의 건축-통코난’전은 아시아의 건축 문화유산을 가상현실로, 즉 ‘재현된 체험’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17일까지 복합2관에서 진행되며 특히 아시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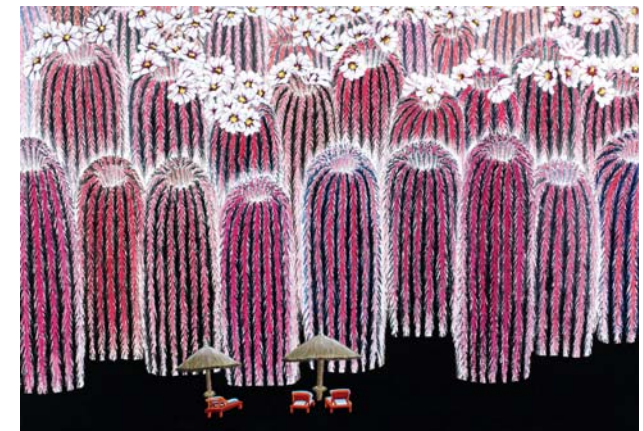
화연구소가 수집한 통코난을 가상기술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통코난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중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토라족의 전통 가옥이다. 바닥이 높게 설치된 고상 주거 형태이며 지붕의 상승감이 강조돼 좁고 긴 형태를 이룬다. 타 지역의 유사 건축에 비해 용마루가 특이한 형태로 높게 구조화됐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2009년 통코난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아시아의 건축-통코난’전은 인도네시아의 전통가옥 ‘통코난’을 3D 스캔 데이터를 가상현실 기술로 재현했다. 단순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차원이 아닌 건축물 자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입장료 무료. 문의 062-601-4021. /박성천 기자 skypark@

인간과 자연 ‘We are the World’

금봉미술관 8~31일 신선운 전



‘어느 두고 온 마음’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이 올해 첫 기획 전시로 한국화가 신선운 작가 전시회를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We are the World’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를 보

여주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신 작가가 선택한 소재는 따뜻한 파스텔톤과 화려한 색감의 선인장 숲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과 사물들이다. 두 가지 소재들이 어우러진 작품은 몽환적이고 동화적인 느낌을 담아내며 파스텔과 평온함을 전한다.

가시와 화사한 꽃들이 어우러진 선인장 숲에서 눈에 띄는 건 작품 아랫부분에 감춰진 작은 소품들이다. 때론 자연속을 평화롭게 노니는 하얀 말 등 동물 이미지가기도 하고, 선베드와 야자수가 어우러진 휴양지의 풍경이기도 하다. 또 자동차·버스와 타임머신을 비롯해 5·18기념동상 등 역사성을 담은 상징물까지 사회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물과 상상력이 만들어진 소재를 적절히 배치해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신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개인전 ‘동물원 일상’, ‘해피월드’전 등을 여는 등 활발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269-988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란의 향기를 담다

박형금 도예전 31일까지 화정2동 U갤러리



‘Ensembles’

행복과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이 단아한 도자 향아리를 감싸 안았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변주된 모란은 점시 위에도 꽃을 피웠다.

도예가 박형금 초대전이 6일부터 31일까지 광주 화정2동 주민센터 1층 U갤러리에서 열린다. ‘모란의 향기를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Ensembles’, ‘Elegance’, ‘Thing’, ‘쥬’, ‘느낌’ 시리즈 등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화사한 꽃의 이미지를 도예에 접목해 다채로운 작업을 해온 박 작가는 초기 장미꽃을 활용하다 2013년 처음 모란을 테마로 자기를 빛기 시작했다

고 지난해 10월에는 프랑스에서 개인전 ‘파리 모란전’을 열기도 했다.

박 작가가 도자기에 새긴 모란은 전통적인 모란꽃 패턴을 모티브로 하되, 작가만의 개성을 담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한 게 특징이다. 호남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속명여대 디자인 대학원을 거쳐 전남대 미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지금까지 8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중국 경덕전’, ‘일본 아리타현 도예전’ 등 100여차례 그룹전에 참여했다. 현재 전남대 미술학과 외래교수로 활동중이며 박금형 도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픈 행사 6일 오후 5시~6시30분. 문의 062-350-440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신수경 피아노 독주회

신수경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신수경은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 음대에서 석사학위, 인디애나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디애나 음대 실기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인디애나 음대 협주곡

12일 광주 금호아트홀

콩쿠르, 월음 콩쿠르, KBS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메나헨 프레스러, 이안 흄슨, 레너드 호킨슨을 사사했다.

신수경씨는 독일 라이프치히, 오스트리아 비엔나, 체코 프라하 등 국내외 40여 회 독주회를 가졌고 KBS 교향악단 현대음악 페스티벌에서 초청 피아니스트로 연주했다.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



망 무곡 작품 6'으로 문을 열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8번 '사냥' 내림마장조 작품

고 있는 그는 지난 2014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와 호남예술제 심사위원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슈만의 '다비드 동

31-3',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 7번 내림마장조 작품 83'으로 무대를 꾸민다. 신씨는 같은 레퍼토리로 오는 17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2-549-4133. /백희준 기자 bhj@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특허공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저전압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을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